

국유기업 주식 10%씩을 사회보장기금에 위탁하도록 한 중국 정부

-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시스템을 강화하고 고령화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상장 국유기업 주식의 10%씩을 최대 연기금인 사회보장기금에 위탁하도록 함
 -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재개된 IPO에 따른 물량 부담을 해소하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음
-
- 최근 중국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국유기업 상장주식의 10%씩을 중국 최대 연기금인 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에 위탁하도록 함
 - 지난 6월 19일 중국 정부는 재정부,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, 증권감독관리위원회,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등 4개 기관은 국유기업 상장주식의 10%씩을 사회보장기금에 위탁하도록 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함¹⁾
 - 이미 상장된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IPO를 준비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IPO시 보유 지분의 10%를 위탁해야 하며, 만일 정부의 보유지분이 10%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지분을 전부 다 사회보장기금에 위탁해야 함
 - 위탁된 주식은 3년간 보호예수(lock-up)를 거치게 되며, 보호예수기간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함
 - 재정부에 따르면 위탁대상은 826개 정부 기관이 보유한 131개 상장 국유기업의 주식으로 시가총액으로는 639억위안(93억달러)에 달함
 - 이번 방안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국유기업들에도 적용돼 사회보장기금이 홍콩 최대의 기관투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
 - 중국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을 통해 사회보장시스템을 강화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임
 -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 - 중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2040년경에는 고령인구가 4억명에 달하고 이 중 1억명은 80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

1) 중국 정부 홈페이지(www.gov.cn), 6월 19일



- 또한, 상당수의 퇴직연금들이 만성적인 저수의 구조로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, 5,623억위안 규모의 사회보장기금이 중국 사회보장시스템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어 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
 - 특히, 2000년 사회보장기금이 설립되기 전에 퇴직한 세대들의 연금급여를 현재의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금 확충이 시급함
-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의 재정 악화로 인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저축이 요구되고 있으며, 이는 소비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
-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고령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□ 한편,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증시 부양과 신규 IPO에 따른 물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

-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침체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매입자 거래세 폐지, 중국 3대은행의 주식 매입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증시 부양엔 큰 효과가 없었음
- 그러나 상장주식을 위탁하여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가 연금의 재정을 고려해서라도 증시 부양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
 - 중국 정부도 이번 조치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밝힘²⁾
- 또한, 2008년 9월 이후 제한되었던 신규 IPO가 5월부터 재개돼 주식시장에 물량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, IPO 물량의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위탁해 보호예수하도록 함으로써 물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음

선임연구원 박진모

2) Financial Times, 6월 22일자